



군위군, 피맥과 함께 청년들과 소통해요 군위군이 최근 우보면 청년문화공유금고에서 제2기 군위청년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를 가졌다. 성과공유회는 청년정책참여단원들 간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 맞춤 정책을 추진,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사진=군위군 제공)

홍준표, TK행정통합 중재안 수용...

이철우 동의하면 급물살 행안부 중재안 6개 조항 대구 경북 통합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적 지위 서울특별시 준하는 위상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행안부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행안부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향후 통합의 주체인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홍시장과 이경북지사와 걸려온 관계도 행안부의 중재안이 수용되면서 눈에 띄는 행정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의 중재안은 통합자치단체 명칭 등 6개 조항을 담았다.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수도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

졌다.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단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사를 직접 밝힌 데 이어 홍준표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있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라는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장기과제'로 돌리면서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시장은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철우 대구시 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오늘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나왔다. 중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다음 주에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행안부의 중재안 제안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조여은 기자

한수원, 30억 국민혈세 직원 '쌈짓돈'...맘대로 평평

가전 의류 등 업무 연관성 확인 어려운 물품 4만2000여개 구입 30여억 지출...1억8천만원 환수 박상용, 도덕적 해이 '度' 넘었다 혈세 사적 유용한 '범죄행위' ...

회사돈이 개인 돈으로 둔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어폰과 찜질기 등 개인용품을 구입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회사돈을 써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수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꼴이다. 이 사실은 박상용(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가전과 의류, 신발류 등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 4만2000여개를 구입하는데 29억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해당 물품들은 이어폰·찜질기·스마트워치·전동칫솔 등 업무 연관성이 모호한 것들이었다. 한수원 감사실이 사적유용으로 확인한 품목 1025개, 1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220명에게는 최대 감봉 1개월 처분을 내

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억이 넘는 나머지 물품들은 공적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괄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등산복·스마트워치·전동칫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동일한 종류의 품목임에도 환수조치 결과가 달라지는 등 감사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한수원 감사실은 2022년 1월부터 20개월 간 회계전표를 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감사실 인력부족 등 한계로 추가 감사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회사돈이 개인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였는지 가늠할 수 없어 기간에 따라 수백억원이 사적유용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용 의원은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더 없었는지 내부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하고, 무분별한 예산낭용을 막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용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 단체인정 !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15일 오전 대명동 게이트볼 구장에서 열리는 제29회 남구청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에 참석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5일 오전 환서교에서 열리는 양남환서교 재가설공식에 참석한다.

경북 야생동물 밀렵 전국 도시... 전국 1위 불명예

이철우 동의하면 급물살 행안부 중재안 6개 조항 대구 경북 통합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적 지위 서울특별시 준하는 위상

지난해 경북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전국 최고다. 야생동물 중에는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887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21건 △2020년 1675건 △2021년 1591건 △2022년 1305건 △2023년 1185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694건이 발생했다. 밀렵된 야생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은 뱀류였고 멧돼지, 노루, 고라니, 꿩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기준, 지역별로는 경북 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189건, 경남 126건, 충북 119건, 전북 104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의 경우, 2019년 252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올해도 8월까지 252건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

발됐다. 이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산양 2마리(울진군, 2023년 4월)도 포함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지급된 신고 포상금은 단 1건(경북, 2019년)에 불과했다. 김위상 의원은 "국내 밀렵·밀거래가 개선되고 있지만 유독 경북지역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 현재 사문화된 신고 포상금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흡으로 철근노출이 발생했다. 공극의 경우 격납갑판 내부철관(CLP) 보강재 하부 및 대형 관통부 하부에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미채움 및 다짐부족 등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수비용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과 보수를 포함해 한수원은 철근노출 보수를 위해 64억원, 공극 보수를 위해 2170억원을 썼다. 한수원은 건전성을 확인한 후 보수를 완료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자인 한수원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 허 의원은 "원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작은 균열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며 "원전 운영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심혈을 기울인 안전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행위 '度' 넘었다

5년간 무려 1174건 적발... 종료령 후 답안 작성 최다

수능 부정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가 1천여건을 넘었다. 매해 200건이 넘는 부정행위가 행해진 셈이다. 이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서 확인됐다. 현황에 따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 등이다.

이 중 2020년 수능에서 발생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의 경우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2건의 사례를 보면 후임에게 대립을 시주한 선민병은 장영 1년을 선고받았고 컨닝페이퍼를 소지했던 수험생은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됐다. 2024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유형을 보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은 2020학년도 48건에서 2021학년도 52건, 2022학년도 71건, 2023학년도 93건 등 매해 증가세를 보였다.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가 63건이었으며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56건, 기타가 33건이었다. 형태용 기자

月刊 정치와시림 골독자들 결으로 !

月刊 정치와시림 최고의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시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결으로 다가갑니다.

경북 인구감소지역 中 기금 집행 無

인구감소지역 기초단체 집행률 고작 18% 그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매년 국고가 1조원씩 투입되고 있지만, 단 한곳도 집행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가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광역지자체에 1495억원, 인구감소지역에 7104억원, 관심지역(인구감소에 상환지역)에 364억이 배분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위기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예산이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지원된다.

6월 말 기준 광역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을 보면 61.3%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18.1%, 관심 지역 집행률은 25.6% 수준에 그쳤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기초 단체의 집행률은 저조했으며 올해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 별로 보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시가 집행률 0%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는 부산·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등 11곳에 이르렀다.

집행률이 10% 이내인 지자체는 전체 90곳 중 47곳으로 집계됐다.

관심지역 중에는 전체 18곳 중 7곳(부산·광주·대전·강원·경남)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0% 이내는 8곳으로 파악됐다.

기금이 주로 문화관광 사업 분야에 투입되는 점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선이 많다.

문화관광 사업에 기금을 집중 투입하면 방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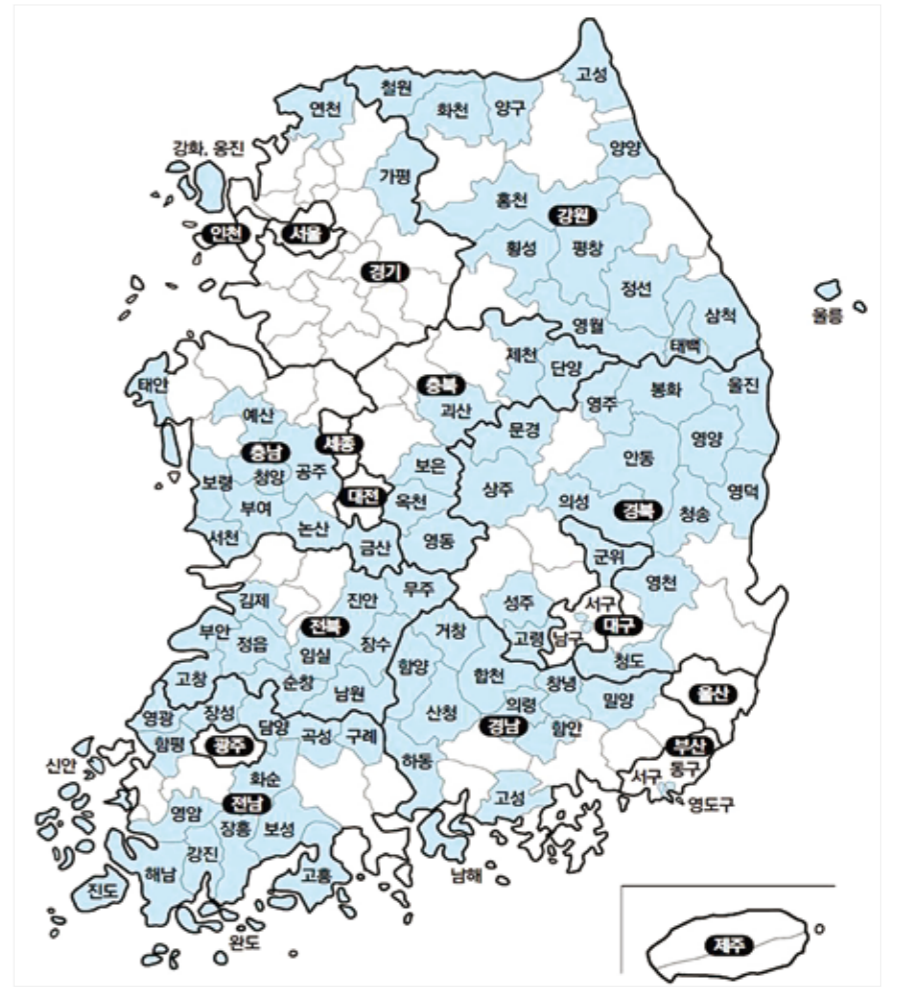
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체류·정주인구 유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분야별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이 383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일자리 23.7%, 주거 19.2%, 교육 8.9%, 노인의료 5.3%, 보육 4.9% 순이었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객 유치 등 일시적인 유입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실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건비,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소멸지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89개 인구감소지역.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수원, 원전 부품 국산화율 절반 그쳐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 강화 원전 수출, 외국사 배만 불러...



국내 원전 부품의 국산화율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이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시설인 만큼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허중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받은 건설원전 국산화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가동원전 정비부품(Spare Part) 32만 7880품목 중 국산 부품은 18만1146품목이다.

현재 국내 가동 원전의 정비부품 국산화율이 55.2%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는 10년 동안 국산화율이 50%대를 유지 중이란 점이다.

2015년 50.2%였던 국산화율은 10년 동안 4.8%포인트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외국산 원전 부품에 쓰이는 금액도 상당하다. 원전 부품 수급의 외화 구매 비율은 매입 금액 기준 30%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내 가동 원전 기기 및 부품 공급망에서 외국 업체가 가진 독점적 지위도 강한 상황이다.

외국 제작사가 원전 건설 시 최초 공급한 기기의 유지 보수 부품은 수의계약과 유사한 '독점적 공급 계약' 절차가 적용돼서다.

한수원이 원전 부품 국산화에 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 의원은 “원전 건설과 이후의 안정적인 유지 보수에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한수원의 원전 부품 국산화율은 10년 동안 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원전 수출이 원전 부품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지닌 외국 제작사의 배만 불러는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8600억 적자...

국힘 김미애 의원, 건보공단 자료분석 국민혈세 인식해야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3531억원 적자 등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한 셈이다.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 지난해 4조1276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보공단 측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당기 수지는 3조8288억원 흑자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명 사상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화학사고' 로 집계 안해? 왜?

검찰은 '화학사고' 로 규정... 개념 새로 답는 작업 필요



환경 당국이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삼수산화비소) 누출사고를 '화학사고'로 집계하지 않아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국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 현황에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작업 중에 비소가스에 노출돼 60대 1명이 죽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며 “그때 대구환경청은 화학사고는 물론 일반사고로도 집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12월 발생한 비소 누출 사고를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화학물질인 삼수산화비소와 비소가 유출되는 화학사고로 규정했다”며

“공소장이 잘못된 건가”라고 되물었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삼수산화비소를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서 생산되는 삼수산화비소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노동사고로 근로자 안전사고로 판단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화학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 청장은 “화학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화학사고인 것은 화학사고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일반사고로 보통 기록을 하는데 일반 사고는 화학사고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 별도의 관리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이 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에서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사고가 아니라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된 사고라 '화학사고'로 분류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보고 배상운 석포제련소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의 판단과 다르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서 청장은 “소송 결과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화학사고의 개념을 새로 답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녹조 발생 ↑ 예방 예산 줄어” 국회서 질타

국회 환노위,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

녹조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녹조 예방 예산은 감소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질타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전북 전주 소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녹조 예방 예산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매년 녹조 발생 빈도,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유엔(UN)에서도 얘기했는데 대처 방안이 있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녹조 예방 및 제거를 위한 환경부 예산은 2022년 260억원에서 2023년 31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293억원으로 감소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환경단체에서 실시한 검

사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주변 주민 속옷에서 녹조 독소

중 하나인 유해 납세균 유전자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기를 통해 녹조 독소가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속옷 녹조 독소 유전자 검출 강득구 의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시민단체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식적으로 하는 검사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을 지적했다.

비점오염원이란 주로 비가 올 때 지표면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로, 비료나 농약, 토양침식물, 축사유출물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이 “비점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산 단지를 나라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매입 처분이 된다면 낙동강 녹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취재반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언하신 슬로건입니다.

경북 B 전문대 13년간 학자금 대출 제한 불명예

인증 없는 부실대학 바주기?... 학자금 대출 제한 빠진 11곳



문정복 의원

교육부가 내년부터 대학 협의체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끊기로 해 놓고 정작 인증이 없는 학교 11곳을 대출 가능 대학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평가 제도를 확정한 이후 인증 없는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시적 인증 유예' 제도를 뒀던 탓이다. 이런 제도는 대학 협의체의 평가 편람에도 없었고 교육부도 밝힌 바 없어 이번엔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구제된 학교 중에는 과거 정부 학자금 대출 제한 명단에 13개년이나 선정됐던 부실대학도 있었다.

정작 교육부는 지난달 인증이 있는 대학 중 일부 '하반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과도기'라는 입장이지만, '부실대학 바주기' 논란을 자초한 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정복(사진) 의원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로부터 기관평가인증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2011년부터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전입교원 확보율 등 정량 지표가 극히 부실한 대학을 뽑아 학자금 대출 지원을 중단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당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시위에 따라 국고를 대학에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지만, 대학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부실대학은 국고 지원에 제약을 뒤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 정부의 획일적 평가가 가져오는 부작

용을 줄이겠다면서 '기관평가인증'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경영위기대학 재정진단'으로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25일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제도 개편방안 시안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못 얻거나 경영위기대학이 될 경우 학자금 대출을 끊기로 한 것이다.

단, 경영위기대학이라도 인증이 있다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안은 지난해 3월에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 대교협은 교육부가 제도를 확정한 지난 1년 만인 지난해 9월 교육부에 두 쪽 공문을 보낸다. 제목은 '미인증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조치 협조 요청'이다.

대교협은 이 공문에서 "미인증 대학은 교육부의 평가제도 개편 방안(2023.3.) 발표에 따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 있어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같은 해 9월7일 기관평가인증 인증 운영위원회, 9월11일 대학평가인증위원회 등 내부 회의체 논의 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들을 구제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제도를 만들었으니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라는 이름의 이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 기관평가인증에서 쓰는 주요 정량 평가지표인 △교육비 환원율 △법인 전입금 △전입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6개 중 2~3개를 충족하는지 따져본다.

3개만 충족하면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년 1년에 한차례 '인증 없음' 대학으로 취급을 않는 것이다.

기관평가인증은 신입생 충원율은 95%, 재학생 충원율은 80%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는 이 값을 각각 57.3%, 42.9%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정부의 마지막 202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준보다도 한참 낮다. 당시 교육부

는 하위 7% 대학까지만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충원율을 신입생 68.67%, 재학생 77.05%로 했다.

대교협은 공문에서 "미신청, 미인증 대학들은 최근 3년 정량·정성적 실적에 근거한 기관평가인증 특성상 실적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인증 참여 대학과의 형평성 및 현재 인증 체계와는 별개인 점을 고려해 미신청·미인증 대학에 일정 준비 기간 동안 인증 결과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구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교협은 이듬해인 올해 3월14일 교육부에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자격 부여 대학 보고' 공문을 보낸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미인증 대학 컨설팅'을 마친 16개교를 대상으로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평가를 실시했고, 모든 대학이 이를 통과했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5개 대학은 대교협의 올해 상반기 기관평가인증 평가를 통과해 인증을 취득했다.

하나 남은 11개 대학 중 2곳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예비 지정됐다.

지난달 6일 교육부는 두 대학을 '학자금 대출 여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9개 대학은 모두 인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교육부는 이들을 모두 지난달 6일 '학자금 대출 가능 대학'에 넣어 발표했다.

변동 가능성 역시 없다고 했다. 이 중엔 201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11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돼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됐던 경기 A 대학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5개년 동안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대학 2곳, 3개년 동안 제재를 받았던 대학 2곳씩 각각 구제됐다.

구제된 일반대학 9곳 중 과거 정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한 번도 들지 않았던 학교는 단 2곳에 그친다.

대학평가 정책 변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A~E 등급으로 구분
A등급 외 모든 대학 (약 84%) 정원 감축 권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 구분
자율개선대학(64%)
일반재정 지원, 역량강화대학 및 제한대학(총 36%) 정원감축 권고

2025년 이후 새로운 평가 체제로 재편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
일반재정 지원 제외 대학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①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만으로 별도 실시 대학에 진단 참여 선택권 부여
② 권역별 선정 비중 확대로 지역 배려 강화
* 진행 중인 '22~24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적용 중

|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 (대교협·전문대교협이 대학의 신청을 받아 평가인증) 기관평가인증 주기 1주기(2011~2015) 2주기(2016~2020) 3주기(2021~2025) 만족유형 인증·조건부인증유예·불인증·인증취소·인증정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 결산서 상 재무지표 활용·분석해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영위기대학 지정 경영진단부터 구조개선과 퇴로마련에 이르는 사할 규정하는 법 제정 추진 (2022년9월30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

자료: 교육부

사진은 2022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평가 개편안 시안

교육부는 이런 대교협의 미인증 대학 구제 요구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없다. 대교협도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을 밝힌 일이 한번도 없다.

기관평가인증을 주관하는 대교협 별칭 한국대학평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까지 2024년도 상반기 기관평가인증 편람을 세 차례에 걸쳐 수정, 개정하면서 공개했으나 여기에도 관련 언급은 없었다.

전문대교협도 대교협처럼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KEDI 컨설팅을 마친 대학에게 5개 정량 지표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2025년 1년에 한 해 구제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인증 없는 2개 전문대가 한시적 유예 조치로

구제를 받고 내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 중 경북 B 전문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2015년 단 한 차례만 빼고 무려 13년 동안 학자금 대출 제한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바 있다.

나머지 1곳도 과거 2차례 학자금 대출 제한 불명예를 썼던 적이 있다.

교육부가 2025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과 대출 가능 여부 변동 가능성 대학 명단을 공표한 시점은 지난 9월 6일이다.

수시모집 개시 사흘 전이었다. 명단에 오르면 신입생 모집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다.

이 중에는 기관평가인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간이 만료돼 하반기에 재평가를 받기로 한 대학 6개교도 포함돼 있었다.

한수원, 환경법 위반 938만원 과태료 물어

한전·6개 발전회사 5년간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무려 1억436만원 물어



전진욱 의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1억 원 넘게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진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간 환경 관련 법을 총 86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436만원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중부발전 2492만원(19건) △한국전력공사 2440만원(27건) △한국동서발전 1664만원(10건) △한국서부발전 1506만원(10건) △한국수력원자력 938만원(8건) △한국남부발전 780만원(6건) △한국남동발전 616만원(6건) 등이다.

이들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고 이외에 대기관리권역법·물환경보전법·화학물질관리법·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을 받았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스페기물 보관기준 위반 스페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 △사용연료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누락 처리하는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공복 배출구 암모니아허가배출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장치 미흡 △유해가스 초과 대기측정기 표준가스 보유 등 대기와 수질을 통해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정진욱 의원은 "현행법 준수와 환경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도를 넘는 범 무시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5년간 조업 중 안전사고 948건...사상자 969명

조업중 안전사고 발생 획기적 줄이는 종합적 대책 마련시급



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간 조업 중 안전사고는 948건, 사상자는 969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고령·성주·칠곡군이 14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9) 조업중 안전사고가 948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상자는 9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조업 중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인별로는 선상작업이 643건(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원인미상 171건(18%), 해상추락(14%) 순이었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969명이다. 이 중 부상자가 700명(7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202명(21%), 실종자 67명(7%) 순이었다.

최근 5년간(2018~2023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협중앙회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협중앙회 전체 예산(4306억 2700만원)의 약 33% 수준 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다행히 조업중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약 1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수협 중앙회는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강화, 구명조끼 등 사고예방·안전용품 보급 확대, 사고 다발어선 관리 강화 등 조업중 안전 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 4년간 법률자문 비용 84억원...

연간 평균 115건 법률자문 의뢰... 5대 로펌만 51억 건당 360만원 꼴

농협이 지난 4년간 법률자문 비용으로 총 8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61%는 국내 5대 대형로펌에 지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 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8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에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51억원이 넘었다.

자문 의뢰 내역을 보면 2021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14억4500만원, 김앤장에 11억1700만원, 세종에 10억1100만원, 율촌에 9억9700만원, 광장에 5억4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1년 평균 115건의 법률자문을 의뢰해 건당 360만원을 사용했다.

수협이 법률자문 195건에 1억8300만원을 지출해 건당 평균 93만원을 지출한 데에 비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수협의 경우 로펌 규모에 따라 법률자문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농협은 외부 법률자문 및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할 시 법률고문을 통해서 로펌, 자문 비용 등을 조정하는데, 법률고문 임명은 내부 추천을 받아 비공개로 모집하고 있다. 명확한 비용과 로펌 계약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법률고문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있어도 못쓰는 취약층 에너지바우처...

2019~작년 미사용률 17.3→38.6% 작년 노인·장애인 미사용률 74.7%



오세희 의원

에너지취약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활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바우처 미 사용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과 장애인에서 월등히 높았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은 2019년 17.3%에서 지난해 38.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장애인의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 영·유아와 임신부, 한부모 가정 등보다 노인·장애인에 있어서 활용률이 높다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는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지만 액화천연가스(LPG)와 연탄, 도시가스 보일러 등은 바우처를 직접 구입해야 차감받을 수 있는 수고에 따른 것이다. 실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에는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편이다.

대신 96.2%가 개별 난방시설인 LPG와 연탄 등에 의존한다. 자동 차감되지 않는 에너지를 쓰다 보니 덩달아 에너지바우처 활용률도 낮은 것을 분석된다.



달성군 비슬청춘대학, 문화탐방 실시

어르신 350여 명, 경북 영주로 가을 여행... 문화탐방 통해 회원 간 소통 시간 마련

달성군은 14일과 오는 16일에 경북 영주시 일원으로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 부설 비슬

청춘대학 문화탐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슬청춘대학 문화탐방은 경북 영주시의 소수서원, 선비촌 등 타 지자체의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교육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상호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했다.

14일에는 남부노인복지관 교육생 140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16일에는 달성군노인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 교육생 210여 명이 다녀올 예정이다.

탐방을 다녀온 한 교육생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맑은 가을에 모처럼 야외에 나와 교우들과 명소를 돌아보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라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올해부터는 기존 노인 대학을 비슬청춘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과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회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비슬청춘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비슬청춘대학은 관내 3개의 교육관에 서(1교육관 노인복지관, 2교육관 북부노인복지관, 3교육관 남부노인복지관) 5월부터 11월 까지 건강, 예술, 운동 등 21회기로 구성되어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여은 기자

경북교육청,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 실시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 진행



경북교육청은 1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dokdoschool.kr)에서 다양한 독도 사랑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교육청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의 협조로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독도사랑행사는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와 '손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 '출석 체크 이벤트', '수료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독도는 우리 땅 댄스 챌린지'는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에 게시된 영상을 참고해 챌린지 영상을 촬영하고, 개인 SNS에 올린 후 인증 사진을 이벤트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종료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개인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단체에는 간식 상자가 제공되며, 우수 작품은 독도 사랑 영상 제작에 활용된다.

'손글씨로 채워가는 독도 사랑 릴레이'는 독도 사랑 문구를 손글씨로 작성해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는 이벤트로, 참가자 중 우수작은 독도 사랑 달력 제작에 활용되며,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과 간식 상자가 지급된다.

'출석 체크 이벤트'는 행사 동안 사이버독도학교 공식 누리집에 매일 로그인해 출석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8일 이상 출석한 5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간식 상품권이, 22일 이상 출석한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15일 이상 출석한 100명에게는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간식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사이버독도학교 독도 교실 수료 이벤트'는 2024년에 독도교실 초·중·고급 과정 중 과정 이상을 수료한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또, 전국화 사업 기간 동안 수료한 사람은 사이버독도학교 누리집 팝업을 통해 제공된 링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10월 14일 이전 수료자는 이벤트 공지 사항에서 제공되는 링크에서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전국민에게 독도 사랑과 독도 수호 의지를 높이기 위해 3년째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이버독도학교 전국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전 국민에게 독도 사랑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며, 독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여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시, 역대급 폭염 대응...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적어

폭염 일수 두 달 역대 3번째 폭염 3대 취약분야 집중 점검 및 피해 최소화 추진

대구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운영한 폭염 종합대책을 지난달 30일부로 마무리했다.

폭염일수는 지난해 27일보다 두 배 가까운 53일이나 이어졌고, 열대야일수 역시 36일에 달한다.

지난해 11일과 비교해 3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기록적인 폭염에도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 13.6% 증가한 67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대책 기간에 폭염대책 TF팀을 가동해 시 및 구·군 관련 부서, 유관기관을 포함해 연인원 5682명이 참여했다.

폭염 3대 취약분야인 △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공공장소 현장근로자, △노년층 농업종사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폭염 대응을 추진했다.

시는 우선 노숙인 현장대응반을 운영,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찰하고, 열음생수, 쿨도시, 마스크 등 냉방·위생용품 지원과 주 4회 도시락과 보

양식을 제공했다.

아울러 쪽방상당소에서는 지난해 에어컨 96대 설치에 이어 올해에도 15대를 추가 설치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천만 원을 지정기부받아 에어컨 전기료도 지원했다.

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의 안전확인을 위해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 7321명이 방문(연인원 30만8942명) 및 매일 전화 안부 확인(총 105만5899회)을 실시하고, 폭염 대처요령 안내(문자서비스 273만5153회)하는 등 보호활동도 강화했다.

공사장 현장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관내 총 191개소 건설공사장에 대해 폭염 취약시간대(14~17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적극 이행, 폭염특보에 따른 휴식시간 준수 등을 점검했다.

노년층 농업종사자(총 6867명)를 대상으로는 장시간·나홀로 농작업을 피하도록 홍보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마을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폭염 취약시간대에 농작업 현장을 예찰했으며, 마을 엠프방송(1만8221회) 및 차량 가두 방송(941회)도 시행했다.

특히, 시는 올해에도 스마트그늘막 80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쿨링포그(물안개분사장치) 8개

소(기존 89개소), 바닷분수 1개소(기존 77개소) 등 115개소를 추가 설치했으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폭염저감시설 2467개소를 전면 가동했다.

뜨거운 도심 열기를 식히기 위해 달구벌대로 등 6개 구간(13.6km)에서는 도로살수 자동시스템(클린로드)을 하루 4회 가동했고, 9개 구·군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살수차 24대(연 798대)를 임차해 하루 666km구간 총연장 1만 9985km에 물뿌리기를 실시했다.

또한, 구·군과 함께 폭염경보 발효기간 동안(총 17회) 유동인구가 많은 경상감영공원, 청라언덕역, 동대구역 광장 등 다중이용 장소 13개소에 자원봉사센터 소속 219개 봉사단체가 중심이 돼 시원한 청라수(빙민수돗물)를 배부하는 등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처럼 민·관이 합심해 예찰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온열질환자 수가 7대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도 세종시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특색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변화된 폭염 특성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관내 주차난 해소 위해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유가·현풍·구지 공한지 임시주차장 총 8개소, 89면 확보 공한지 임시주차장, 토지매입 불필요 예산은 ↓ 주차공간은 ↑



달성군은 14일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한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해 총 8개소 89면의 주차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유휴부지를 조사하고,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무상 임대한 토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작년 시범사업으로 조성한 다사읍 1개소에 이어, 올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업의 첫 단계로 주차장 조성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내 유휴부지를 조사하고 토지소유주와 협의에 나섰다. 이를 통해 유

구지면 응암리 1214-14번지(7면)

유가읍 봉리 592-6번지(8면)

현풍읍 중리 462-9번지(8면)

현풍읍 중리 473-5번지(8면)

가읍 2필지, 현풍읍 5필지, 구지면 2필지로 총 9

이달에 현풍읍 4개소, 구지면 2개소까지 마무리했다.

6월부터 공사에 돌입해 토지평탄화 작업,

이번 사업으로 확보된 임시주차장은 8개소로

잡석 포장, 주차선 표시 등의 작업을 거쳐 지

난 8월 유가읍 봉리 2개소가 준공되었으며,

8월 8일 유가읍 봉리 2개소가 준공되었으며,

총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힘 모은다

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 방제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방안 논의

경북도는 14일 도청 동라관에서 산림청, 도내 시군 및 국립공원 등 관련기관 관계자 9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10월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기에 맞춰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8(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gy.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0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84
 편집국장 053-26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8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건동 지역단체, 홀몸 어르신 생일상 대접

성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지역 내에 거주하는 김O조(여, 96세) 어르신 댁을 방문해 생일 축하와 함께 생일상을 지원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자녀들로부터 생일상을 받기 어려운 홀몸 어르신에게 직접 생일상을 차려드리며, 이웃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위원들이 정성

스럽게 준비한 케이크와 함께 찰밥, 미역국, 불고기, 잡채, 생선, 나물, 전, 호박죽, 밀반찬, 떡, 단술, 과일, 간식, 선물로 생일상을 차렸다.

생일을 맞은 어르신은 “직접 집까지 찾아와 생일상을 차려주고 축하해줘서 정말 행복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황금정원나들이’ 행사...개막일 4만명 ‘최다’ 방문

Welcome to 경주 APEC 주제 행사기간 동안 약 20만명 찾아 2019년 행사 후 누적 91만명 성악 공연·시민정원 콘서트

경주시는 지난 4~13일까지 황남동 고분군 일원에서 개최한 ‘황금정원나들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Welcome to 경주 APEC’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황금정원나들이’는 가족, 친구, 연인 단위의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10월 경주의 가을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10일 동안 많은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다. 지난 5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인칸토 솔리스트 앙상블’의 성악 공연과 시민정원 콘서트 시상식이 진행됐고,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드론 라이트쇼와 화려한 개막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개막일인 5일 하루에만 4만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관람객 기록을 세웠다.

행사 기간 2025 APEC 정상회의의 기쁨과 환영의 뜻을 담은 주제정원 꽃 조형물은 일몰 후 경관 조명과 함께 더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도시농업정원은 농작물과 가을꽃으로 꾸며져 여러 분야의 도시농업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밖에도 색칠하기 체험, 풍선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SNS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경주시는 행사 기간 약 20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으며, 2019년 첫 행사 이후 누적 관람객 수는 91만 명에 이르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경주에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황금정원나들이’를 트렌드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 4~13일까지 황남동 고분군 일원에서 개최한 ‘황금정원나들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주시 ‘잡-페어’ 성료

경주서 열린 찾아가는 일자리 구인·구직 만남의 장인 ‘잡(OB)-페어(FAIR)’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경상북도-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취업지원센터-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과 11일 외동읍민체육회관과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개최됐다.

행사 첫날에는 외동·내남 산업단지 내 업체 19개사가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420여 명의 구직 희망자가 방문해 145여 명의 구직·구인 매칭이 이뤄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안강·천북·강동 산업단지 내 14개사가 참여했다.

이날에는 310여 명의 구직 희망자가 방문해 70여 명의 구직·구인 매칭 성과를 거뒀다.

각 업체에서는 인사 담당자와 1:1 만남을 통해 기업정보와 하반기 채용 정보를 안내했다.

행사 주관기관에서는 주메타버스 채용 플랫폼(www.jobgb.co.kr) 활용, 증명사진 무료 촬영, VR면접체험, 취업타로, 퍼스널 컬러 등의 부대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또 경상북도일자리정책홍보관, 포항고용노동지청,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중장년내일센터,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주시청년센터, ㈜봉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등의 기관에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홍보 부스도 운영했다.

한편 지난해 개최된 ‘원격별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는 33개사, 308여 명이 참여해 지역 내 취업 기회 제공에 큰 기여를 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안내와 구직자들의 취업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실업문제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 기존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개 ‘동경이’ 홍보... 반려동물 페스티벌 성료

부스 체험·경품 증정 이벤트 반려견 운동장·놀이터 운영

경주 반려견 페스티벌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주 엑스포대공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견과 함께하는 경주 반려견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무대 프로그램 △반려견 놀이터 △부스 체험 및 경품 증정 이벤트 등으로 나



뉘 진행했다.

무대 프로그램으로는 퓨리아빠로 유명한 슬리피와 이용종 교수의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펫티켓 OX 퀴즈, 기다려 대회,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펼쳐

졌다. 모든 반려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반려견 운동장과 놀이터는 중·소형견과 대형견으로 구분돼 안전하게 운영됐다.

넓은 운동장 내에는 다양한 어질리티 장비가 마련돼 반려동물들은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 내에서는 국가대표 훈련팀 및 경주개동경이팀의 어질리티 공연이 선보였고, 독 스포츠 어질리티 체험교육도 함께 병행됐다.

체험부스는 경주시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홍보, 무료 동물등록 및 쿠팡 증정

이벤트를 시행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K-국견을 만나다(동경이 및 삼삼개 체험), 무료 위생미용, 강아지 간식 만들기 등 다양한 부스는 축제의 흥미를 한껏 더했다.

이번 행사의 메인인 ‘맹랑아 산책하자’는 반려인과 동물이 아름다운 엑스포공원을 함께 걸으며 추억의 시간을 보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車 집중 단속

21~24일까지 단속 진행 2회 이상 체납 차량 대상

경주시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 징수과와 각 읍·면·동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을 운영해 주간 및 새벽 집중 단속에 나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이다.

단속에 앞서 시는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강구식 경주시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동학교육수련원 프로그램 우수성 홍보

경북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힐링명상 주제 부스 운영

경주시가 제11회 경북도 평생학습박람회(2024 정도)에 참가해 동학교육수련원의 프로그램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청도군 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도내 22개 시·군과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모여 각 기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운영하고 평생학습동아리의 경연, 작품 전시 등이 펼쳐졌다. 동학교육수련원은 ‘싱잉볼·힐링명상’을 주제로 아이 홍보 체험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싱잉볼(singing bowl)이

란 ‘노래하는 그릇’이란 뜻으로 두드리거나 문지르면 생기는 파장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체험자에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명상 도구이다. 이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힐링과 치유’의 도구로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싱잉볼을 체험하려는 사람들로 총 4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한 참여자는 “아름다운 향기와 싱잉볼 소리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강영숙 화랑마을촌장은 “이번 박람회로 많은 사람들이 싱잉볼 명상 체험을 포함해 동학교육수련원에 관심을 가진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동학교육수련원의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청춘 만남 주선... 프로젝트 행사 성료

총 10쌍 미혼 남녀 참여 행사 종료 후 2커플 나와

경주시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기획한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 3기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최부자아카데미에서 열린 행사를 끝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성료됐다.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

는 미혼 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3기 행사에는 총 10쌍의 미혼 남녀가 참여했으며, 이 중 2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이에 앞서 시는 경주에 주소를 둔 20~39세 직장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다 참가자들의 신원을 철저히 검증한 만큼, 이들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시는 기대

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일상 속에서 만나기 어려운 분들과 만날 수 있어 뜻깊었다”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청춘동아리 행사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연애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장, 소수 직렬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

직원들 국별 워크숍 등 건의 “직렬 입장서 고충 살필 것”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축산·수의 등의 소수 직렬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소통 간담회는 축산·수의, 환경 분야 7급 이하 공무원 10여 명과 점심까지 함께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직원들은 먼저 타 직렬 근무의 교류나 소통이 비교적 제한적임에 따라 국별 워크숍이나 지역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건의했다. 각종 민원 등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은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을 요청했다.

주낙영 시장은 늘어나는 업무량이나 각종 민원으로부터 고생하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각 분야에 대한 업무 고충과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노진 축산정책과 주무관은 “평소 축산 업무를 수행하며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z

예천군 MY마라톤, 공무원 마라톤대회 성과

예천군 MY마라톤클럽이 지난 12일 영주시에 열린 '제13회 경북도지사기 공무원 마라톤대회'에서 단체전 3위, 개인전 3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청 및 21개 시군 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10km 단일종목으로 치러졌다. 예천군 MY 마라톤클럽은 2024년 새롭게

창단된 취미클럽으로 MY는 'Marathon in Yecheon'의 약자로 '예천에서 달린다'는 의미와 '나의 마라톤'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클럽은 첫 출전한 대회에서 단체전 군부 3위, 서현지 회원이 여자 개인전 3위를 차지했다.



“울진 청년농업인 정착...다양한 지원 추진”

울진군, 청년 농업인 간담회 청년 창업농 자립 기반 구축 임대부지 확보 등 대책 마련

울진군은 지난 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청년 농업인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15명의 청년 창업 농업인들과 손병복 울진군수, 관계공무원 등 약 30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청년 농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등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청년 창업농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가운데 선발하며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으며 울진군은 2018년부터 21명이 선정되어 있다.

유기농 에듀캠프 조성사업은 스마트팜 시

설하우스에서 시설딸기, 토마토 등 재배기술을 배울 수 있는 친환경 현장실습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 등 약 21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농업인은 “울진군에서 청년농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이 빠르게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지원과 지속적

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청년농업인들이 울진 미래농업의 희망임을 강조하면서 “본인 스스로 품목 선정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관련교육 이수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익히는 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울진군 행정은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을 위한 임대부지 확보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영양군, 277농가 벼 드론 방제

영양군은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156ha에 277농가를 대상으로 8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벼 드론 방제를 실시했다.

드론 방제 기술은 기존의 수작업 방제보다 더 넓은 면적을 보다 빠르게 방제할 수 있어 고령화된 농촌에 인력 부족 문제와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로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고온다습한 환경과 일조 부족 등 기상 이변으로 병해충의 발생이 증가하여 1차에는 세균성 병과 2차에는 비래해충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방제를 실시했다.

권윤동 기자

영양 제3회 수비능이버섯축제 성료

축제기간 5천여명 관광객 농·특산물 약 3억원 매출

지난 12~13일 영양군 수비면 일대에서 열린 '제3회 수비능이버섯축제'가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기간 동안 5천여 명의 관광객과 소비자 등이 축제장을 찾았고, 축제의 메인 특산물인 능이버섯과 송이버섯 약 1톤 정도를 비롯하여 영양고추, 영양사과 등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약 3억의 매출을 올렸으며, 축제 종료 후에도 버섯을 찾는 문이 이어져 파생되는 경제

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자연의 보약을 내 몸에”라는 주제로 능이버섯을 이용한 건강간 먹거리, 특산물 판매 장터 등이 마련되었고, 행사 이틀간 능이나라 나눔행사, 전통판소리와 줄타기 공연, 초청 가수공연, 맥주와 요구르트 빨리 마시기 대회, 지역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올해는 능이담공탕, 능이전, 능이무침 등 능이버섯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의 인기가 높았으며, 이상기운 현상을 이겨내고 자라난 능이버섯과 송이버섯이 축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권윤동 기자



제9회 전국청도관광사진공모전 시상식

전국서 총 911점 접수 일반 사진 금상 김택수

청도군의 “제9회 전국청도관광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3일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올해 제9회를 맞이한 전국청도관광사진공모전은 청도의 자연과 지역문화, 관광지, 전통가옥 등을 주제로 하여 청도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관광명소를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모전으로 2016년부터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911점(일반사진 664점, 스마트폰 사진 247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일반사진 부문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4점, 입선 30점과 스마트폰 부문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3점을 선정했다.

당선된 작품은 청도반시축제기간인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 로비에서 게시됐다.

일반 사진부문 금상은 김택수 ‘감물열색’ 작품이, 스마트폰 사진부문에는 김다은 ‘과거로의 시간여행, 새마을테마파크’가 수상의 영예를 안

았으며, 입상한 수상자와 가족들이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여 청도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 다양한 매력적인 사진 작품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기 청도부군수는 “청도의 미와 멋을 사진으로 담아주신 사진작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청도관광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청도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널리 홍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문화·예술·관광 허브 도시 청도의 시각 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20명 대상 한국코미디어운서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1일 한국코미디어운서에서 관내 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프로그램 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미지 컨설턴트, 플로리스트, 쇼콜라티에 직업인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체험을 해보는 활동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자신의 퍼스널컬러 알아보기, 메이크업 실습 체험을 하는 이미지 컨설턴트, 꽃을 다루는 방법을 익힌 뒤 실제 꽃을 활용해 작품 만드는 플로리스트 체험, 그리고 초콜릿을 활용한 디저트를 만드는 쇼콜라티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진로·직업 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 즐거웠고 나에게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계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청도교육지원청 이시균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진로·직업프로그램 체험을 계기로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자립생활능력과 직업인의 기능 및 태도를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청송소방서, 2건 산악사고 발생... “등산 시 지정 등산로 이용 필수”

9·10월 전체 출동건수 25%



청송소방서는 지난 10월 2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했다.

오후에 주왕산국립공원에서 등산객 A씨(남·50대)가 다리부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구조활동에 나섰으며 병원에 이송했다.

이후 청송군 파천면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던 B씨(남·50대)가 연락두절 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소방차량 5대, 소방20명, 의용소방대원

17명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에 나섰으며, 3시간 만에 체중증 및 기력저하 상태인 구조대상자를 신속히 구조하여 병원으로 이송했다.

청송군의 통계를 보면 23년 63건, 24년 10월 기준 43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3만 3,236건으로 집계되었고 연평균 구조인원은 8,389명에 이른다.

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급증하

기 시작해 9월, 10월 두달동안 전체 출동건수의 25%를 차지했다.

문정환 소방서장은 가을철은 산악사고가 집중되는 시기로 “등산 시 지정 등산로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기상정보 확인 △개인의 체력과 당일 컨디션을 고려한 등산코스 선정 △등산 전 가벼운 준비운동 △큰 온도 차에 대비한 가벼운 겉옷 준비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예천박물관, 국가사업 선정

예천군은 예천박물관이 국가유산청 주관 ‘생생 국가유산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1억여 원을 확보했다.

‘생생 국가유산 사업’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국가유산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다양한 수요자가 향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예천박물관은 2023년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예천의 기록유산인 ‘대동운부군옥’과 ‘조간일기’를 활용한 1박2일 박물관 캠핑 체험 프로그램인 ‘다같이 조간(정)정주행’을 비롯한 ‘대동운부군옥, 풀이파일러’, ‘선비의 참견, 토틈 프로젝트’와 같은 참신한 교육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해왔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협력과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아, 내년부터는 집중사업으로 승격되면서 약 5천만 원 증액된 1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박상현 문화관광과장은 “지역의 대표 국가유산과 결합한 부가가치 높은 콘텐츠를 기획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 벼 수확철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 시작

북영덕·동양RPC 2개소 인센티브 물량 전년 비 ↑



영덕군은 벼 수확철을 맞아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을 14일부터 북영덕RPC와 동양RPC 2개소에서 시작한다.

올해 영덕군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은 산물벼 1,169.6톤, 건조벼 1,556톤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물량은 전년 대비 800톤 이상 증가한 873.6톤이다.

이는 추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센티브 물량이 배정되면 총 3,599.2톤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배정되는 인센티브 물량은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밖에 포대벼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군에서 지정된 수매 장소에서 수분함량 13.0~15.0% 이내 건조상태로 매입될 예정이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은 10~12월 전국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입하며, 우선지급금은 전년도와 같은 40kg

포대당 3만 원으로 매입 직후 지급돼 최종 정산은 올해 12월 말까지 이뤄진다.

매입 품종은 안평과 삼광이며, 채취한 시료에서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인 사실이 적발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덕군은 공공비축미곡과 RPC 자체 수매 산물벼에 대해 건조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건조 수수료 중 85%를 지원하고, 건조벼 수매 시에는 공공비축미곡매입용 톨백포대의 50%를 지원해 벼 재배 농가의 수익 향상과 일손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영주한우농업회사법인, 식품 기부

영주시는 14일 영주한우농업회사법인 최용환 대표가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위해 곰탕 1,720개와 등심 한우 2kg 35개(1,5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 물품은 영주시 노인복지시설 23개소와 경로식당 5개소에 전달될 예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환 대표는 "이번 기탁이 지

역 어르신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용환 대표는 '영주한우 복합 관광타운은 정육식당, 축산물·로컬푸드 판매장 등을 갖춘 경북 지역 내 최대 시설로, 지역의 신개념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영주풍기인삼축제 '관광+경제' 시너지 성과

주변 관광지 많은 발걸이어서
식당가 등 높은 경제효과 거둬
9일간 48만명 축제장 등 찾아

'2024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인삼의 본고장인 영주의 명성을 알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개최된 이번 축제는 기간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48만명이 축제장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해 32만명 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올해 27회째를 맞는 만큼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 운영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풍기읍 남원천 둔치와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까지 축제 공간을 넓혀 풍기인삼 판매장과 다양한 공연, 체험행사를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장에서는 풍기인삼의 역사를 기리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주세봉 행차 재현, 풍기인삼 대제, 전국 우량인삼 선발대회 인삼 깎기 경연대회 등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색적인 행사가 연일 이어져 관광객을 즐겁게 했다.

공영홍쇼핑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공영라방'을 통한 풍기인삼 실시간 판매를 도입해 축



문경시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오는 19~27일까지 9일간 제19회 문경사과축제를 개최한다.

제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풍기인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비된 수량을 완판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 같은 행사는 판로확대로 지역 농가에 힘을 실은 것은 물론, 축제의 범위를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대해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축제 현장에서는 인삼 구매자를 대상으로

'황금인삼을 찾아라' 이벤트를 진행해 매일 순금 1돈의 행운을 선사해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겼으며, 인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인삼 경매와 풍기인삼 깎기 대회와 같은 인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도 큰 인기를 모았다.

한국관광공사의 '지역축제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선정된 이번 축제는 랍스터 급식으로 이

름을 알린 김민지 영양사의 주도로 인삼테마 파닭, 인삼크림 쿠키샌드 등 독창적인 인삼요리와 함께 진행된 쿠키클래스에 사전 접수된 6개 팀 15명이 참여해 새로운 인삼요리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인삼'을 주제로 하는 축제로,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어린이 에어바운스를 설치

하고 인삼인형극을 선보이는 등 전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축하하기 위해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서 축하비행을 선보이며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2024영주 무섬의나무 다리축제'와 영주 원도심 야행 '관사골에 비친 달빛', '영주소백힐링 걷기대회', '전국 동요인 씨름대회'와 '공무원 마라톤대회'가 함께 진행돼 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연계행사가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연일 따뜻하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와 소수서원, 아름다운 풍광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무섬마을과 관사골, 한문화 테마파크 선비세상,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 등 지역 내 관광지에 많은 발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지 주변, 시가지 식당가 등 높은 경제효과를 거둬 축제가 지향하는 경제축제로서의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의 맛과 멋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축제로 자리매김 했다"며 "특히 영주는 한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인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의성형 로컬셀러 교육... 매출 증가 성과

기본과정 이어 심화과정 개강
기존 셀러 평균 매출 50% 올라

의성군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정보교육장에서 쿠팡 MD 부장 출신 컨설턴트를 초빙하여 수강생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적 상품 선정과 효율적인 판매가 설정'을 주제로 한 1

차시 강의를 시작으로 의성형 로컬셀러 양성교육의 심화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로컬셀러 양성교육 기본과정(1, 2기)의 연장선으로, 의성의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11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 15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시

장 트렌드를 분석하여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심층적으로 배우는 등 실질적인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지난 3~5월에 진행된 1기 교육을 통해 16개의 스토어가 개설(80%) 되었으며 그중 13개의 스토어에 실매출이 발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기존 셀러의 평균 매출이 50% 증가하였으며

그중 1개의 스토어는 네이버 셀러등급 '파워'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힘입어 1기와 마찬가지로 20여 명이 대상으로 한 2기 교육이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의성의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영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영천시의회의는 14~24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4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확대방지 조례안 등 총 22건의 조례안·동의안 심사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10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 후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선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집행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주요 업무들이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영천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칠곡, 육아공동체 인식전환 홍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칠곡군이 "칠곡군이 함께 키운다"를 주제로 육아공동체로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은 10월 11일 아동관련사회단체와 함께 석적읍 일원에서 진행했다.

칠곡군은 다함께돌봄센터 야간돌봄과 시간제 어린이집 휴일 및 야간돌봄, 아픈아이 긴급돌봄 병원동행서비스를 안내하는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군민들에게 올해 칠곡군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육아관련 서비스를 안내했다. 자녀의 등굣길 동행하던 학부모 등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보였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육아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칠곡군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육아공동체로 인식전환 캠페인과 찾아가는 정책홍보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시 푸드플랜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가족농 중심 농가 조직화
가공식품 활성화와 지역인증제

문경시는 지난 11일 지역 내 먹거리 문제 해결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목표로 수립한 문경시 푸드플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행정, 관련 농업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문경시 푸드플랜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먹거리의 자급률을 높이며,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 건강 증진을 목표로 수립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가족농 중심의 농가를 조직화하여 연중 공급가능한 기획생산 작



부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공공복지급식, △가공식품 활성화와 지역인증제 도입 등 안전 농산물 공급이다. 그러나 본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관계 법령의 마련, 인력과 조직확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푸드플랜 수립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안동,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접수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
신규 근로자 현지 면접 선발

안동시는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위해 오는 10월 23일까지 참여 농가 신청 및 접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MOU(업무협약) 단체입국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연장 3개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시기 조정확대,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신청 결과에 따라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농가 재추천 근로자 이탈 방지, 신규 근로자 현지 면접 선발 등을 통해 성실하고 검증된 근로자를 선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최대한 맞춰 계절근로자를 배치받을 수 있도록 배치 시기를 이분화해 농업인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계절근로자 선 호국가를 함께 조사하는 등 고용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신청을 받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5회 상주시 기업인상 대상 (주)덕산지에스

최우수상 (주)진성 대표이사

상주시에서는 2024년 제5회 상주시 기업인상 대상에 (주)덕산지에스 박문수 대표이사, 최우수상에 (주)진성 조진우 대표이사를 수상자로 선정하고 2024년 10월 11일 '상주 시민의 날' 기념행

사에서 시상했다.

상주시 기업인상은 지속적인 기업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봉사에 솔선수범한 모범 기업인을 위한 상으로 2020년 1회 기업인상 표창이 시작된 후 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상 수상자 '박문수' 씨는 2007년 상주시의 답농공단지(주)덕산지에스를 설립하여, 회사 설립 후 수로관, 맨홀, 식생블럭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제조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KS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바탕으로 회사 연매출 1,800억을 달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 기여했다.

최우수상 수상자 '조진우' 씨는 2013년 화서농공단지 (주)진성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친

환경 건설을 선도하여 ISO 취득, 특허출원 등 사업을 건설이 추진 및 확대하였다.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민 고용 증가와 근로자 복지 증진에도 힘써 공이 크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수상 기업인 모두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인 분들로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어 대한민국 및 세계의 일류기업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한 동행 영천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기간: 2024. 10. 7. (월) ~ 11. 5. (화) 30일간
- 감사기간: 2024. 11. 26. (화) ~ 12. 2. (월) - 예정
- 제보대상: 시정 전반(예산낭비, 위법·부당한 사항 등)
- 제보방법: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cjstk0215@korea.kr)



시민의 소중한 바람을 담아
더 나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천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갑균



의원
하기태



의원
이영기



의원
이영우



의원
우애자



윤리특별위원장
김용문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
배수예



의회운영위원장
권기한



부의장
김종욱



의장
김선태

